대덕이노폴리스포럼 패널 내용

송뢰(松籟)소리를 듣다.
흔히들 소나무 숲 사이를 스쳐 부는 바람을 송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딱히 송풍(松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뢰'(籟)의 말뜻이 '세 구멍 퉁소'여서, 송뢰소리라 함은 소나무 사이를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며 나는 마찰음이 아니라 소나무 내장을 통과한 기이한 울림이 있고 기어이 몸에 동조를 일으키는 파장, 그러니까 노래에 더 가까운 바람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오묘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시원과 근본을 되묻게 하는 바람소리인 셈입니다.

오늘 승효상 선생의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담긴 논의는 인류가 일구어온 도시와 건축 역사의 숲속, 그 수많은 기념비적 현상들의 몸속을 경유하여, 중심기압을 유지한 채 '지금, 여기'까지 다다른 송뢰소리를 듣는 것과 진배없었습니다. 그 동안 먹고사느라 분주하다는 핑계로 거울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때가 끼었거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해진 우리들의 자화상, 그 일그러진 모습이 어떠한 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현상의 이면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세 가지 요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첫째는 서구에서 폐기된 듯한 위계적 중심적 도시구조로 틀을 짠 다이아그램적 마스터플랜과 함께 과학적 통계수치를 들이대며 이성과 합리를 내걸고 영악한 자본의 힘과 고도의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우리 고유의 땅을 유린하기 시작한 이래 그 기세는 지금도 꺾이지 않은 채, 도시 속의 삶은 효율성과 합리성, 기능과 속도에 휘둘려 더욱 더 강퍅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숫자와 단위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도시개발정책의 도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함의도 없이 오랜 삶의 터들은 그 속에 구축된 건축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야 했으며, 산이나, 계곡과 물길을 왜곡시켜 전국의 도시를 정체성 없는 고만고만한 부동산 집적체일 뿐인, 불구의 도시를 양산해왔던 셈으로, 건축은 한갓 재테크 수단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어서 우리의 옛 도시와 건축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 구악으로 간주하여 급기야 우리 도시는 이른바 사회공동체(civitas)는 없고 건물공동체(urbs)뿐인 괴집단의 양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처럼 삶의 질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 없이 진행되어온 건설패러다임의 위세는 신도시들을 만드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옛 도시들을 재개발, 도시 정비사업의 이름으로 터무니없이 뜯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땅의 고유한 역사, 그만이 발현하고 있는 메시지를 태연자약 유린하면서도 전문가 집단이든 관련 분야 종사자든 정책입안자나 일반인들 대부분이 '가까운 과거'조차 비판적 성찰과 인식의 전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시대의 불감증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기실은 이처럼 사유의 무풍지대를 파고드는 서늘한 지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거나 "삶이 뭐 있나, 다 그런 거지.", 또는 "그런 문제야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

냐?"라고 쉽게 말하고 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송뢰가 불어오는 곳

그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근원지는 알고 보면 인류가 제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온 도시와 건축의 역사 중에서도 주류로 기록되어온 유산에 속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상의 진단으로부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도시와 건축을 근본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귀담아 들어야 마땅합니다.

첫째는 각 칸에 놓여 있는 사물마저 그 칸의 소실점을 따르지 않고 제 각각 다른 소실점을 만들어 그린 '책거리'라는 옛 그림에 들어 있는 세계관처럼 도시와 건축을 바라다보는 관점에서 단일중심의 세계를 믿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물이 모두 중심이 되도록 믿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사는 도시와 건축이 비로소 다원적 민주주의의 도시로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를 위해 우리가 참조해야 할 사례들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개입하지 않은 건축가 없는 건축과 도시들 속에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페즈 (Fez)혹은 마라케시(Marrakesh 같은 모로코의 도시를 들 수 있으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 약자로서 질박한 삶을 사는 이들의 공동체지만, 그들만의 더불어 사는 법을 알고 나누며 사는 지혜를 그대로 건축화한 달동네가 바로 소중한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글 속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땅 위에 각인된 역사,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풍경, 심지어는 역사의 흐름이 정지된 폐허 같은 총체적인 문화풍경은 미적 판단에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며,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지문(指紋)이 있듯이 모든 땅도 고유한 무늬(地紋)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땅을 끊임없이 변하는 생명체이며 스스로 무엇을 덧대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운체로 인식하여 장소의 특성을 드러내는 건축행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종래의 인위적으로 축조된 다이아그램적 도시 건설패러다임에서 다중심적, 자생적, 장소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우리 도시와 건축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 관점에 토론자 역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 그런 모습'을 찾아 제각각 생각을 짓고 삶을 짓는 것이 건축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스스로 기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이하게 만드는 것은 형태와 승경이며, 사람은 스스로 귀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하는 것은 재주와 덕성이다"("地不自奇 所奇者 形勝也 人不自貴 所貴者 才德也")라는 학봉(鶴峯)선생의 말씀 속에는 형승을 다루는 디자인 행위가 곧 땅을 고귀하게 한다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형승 또한 "혼도 있고 정신도 있으며 심지어 말하기도" 하는 땅에 새겨진 지문의 발현체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송뢰, 가슴에 품다

"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 1895-1985)의 말처럼 '장소의 특성을 시각화하는 우리의 건축행위'는 그 장구한 역사를 체험해 온 땅이 새롭게 요구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예의를 갖추어 그 경이로운 언어를 들추어내고, 깊이 사유하여, 새로운 시어를 그 위에 겸손히 지어 덧대는 일이 건축이다."라는 승 선생님의 결어를 읽으며 토론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희작소계도'와 이문구의 '우리 동네'를 떠 올리게 됩니다.

"소자첨은 남해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아미도 때문에 병이 나았기에/ 나도 지금 소내를 그려서 보고픈데/ 세상에 화공 없으니 그 뉘에게 부탁하랴/ 시험 삼아 수묵으로 초벌 그림 그려보니/ .../ 남자주 가에는 방초가 푸르르고/ 석호정 북쪽에는 맑은 모래 깔렸으며/ 저 돛은 필탄을 지나는 배 분명하고/ 나룻배는 귀음을 가면서 부르는 듯/ 검산은 절반이나 구름 속에 들어 있고/ 백병봉은 저 멀리 사양을 지고 섰으며/ 하늘가에 높다랗게 보이는 절과 함께/ 물 모이는 곳 지세가 잘도나 어울리네/ 소나무 노송나무 덮고 있는 것 우리 정자이고/ 뜰에 가득 배꽃 핀 곳 저건 우리 집이지/ 우리 집이 저기 있어도 갈 수가 없어/ 날로 하여 저걸 보고 서성대게 만드네 그려"

선생이 생각하는 집의 개념은 자신의 집 한 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보이지도 않는 3,40리나 족히 떨어져 있는 주변까지 촉수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관념으로 집 안팎을 소통하고 교감하는 차원이라면 땅에 대한 해석과 운용은 이미 일상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명백한 증좌입니다. 불과 100 여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선비들의 건축 행위는 그렇게 땅을 읽고 그 지리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집은 있는 듯, 없는 듯 풍경의 일부였으며, 되도록 튀지 않고 배경으로 머무르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디자인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었음을 체득했던 셈입니다. 가능하면 덜 손대고 최소한으로 땅을 점유하려 했습니다. 그런 집과 동네에서는 탐욕의 짙은 그림자가 불사신처럼 깃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입담으로 충청도 사람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던 한국문단의 커다란 별 이문구, 그의 소설 '우리 동네' 속엔 어찌된 영문인지 동네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설 속 어디를 읽어 보아도 김씨, 이씨, 최씨, 정씨, 유씨, 강씨, 장씨, 조씨, 황씨는 있어도, 그네들 집은 보일 듯 말듯 보이지 않는다. 집이 보이지 않으니 집이 모인 동네 모습은 더더욱 그려지지 않습니다. 포복절도할 만한 진한 삶은 있으나, 그 애환을 모두 다 끌어안고 아옹다옹 모여 있을 징한 공간은 아지랑이처럼 증발한 모습으로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그저 정감이 가는 동네 이름, '느티울'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 걸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집이나 여타의 시설물 모두가 자연과 대적할만한 크기나 규모를 가진 것도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잘 스며들거나 어우러져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눈에 거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이나 동네 모습은 있는 듯 없는 듯, 굳이 소설가의 구구절절한 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덤덤한 배경처럼 물러 서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동네 곳곳에 집이나 여러 형태의 물리적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으되 그저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삶을 뒷받침하는 도구요 장치일 뿐, 스스로 랜드마크를 자임하며 호들갑 떨며 디자인 된 것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극할만한 대상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히려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의 숨어 있는 질서와 그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조화와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우리 동네'는 비록 집이나 어떤 시설물이든 보잘 것 없어 보이는데다 고급 마감 재료나 정교한 디테일로 디자인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 나름 소박하지만 구성과 질서의 힘으로 결코 누추하지 않은 검이불누(儉而不陋)의 디자인 경지를 함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자연-사람-삶 사이의 보이지 않는 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그들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원칙이요 공동체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디자인 원리였을 것입니다.

토론을 마치며

때마침 국내외 경제 전망이 어둡고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으며 세계 자본 시장이 움츠려 든 요즈음,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던 벤츠가 일시나마 제동이 걸려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혼절할 만큼 질주했던 개발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며 우리 도시와 건축의 앞날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승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과 대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특별한 이견 없이 누구나 수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응의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가려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교육계는 물론 도시 건축 관련 전문가 집단을 향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 선생님의 논지는 당연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건축가의 사회적 발언은 일정 부분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침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평소 정치권에 대해 우리의 삶과 직결된 도시와 건축 문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나 주요사안에 대해 건축계를 대표해서 조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건축가로서 '생각하는 것'과 '말 하는 것', 그리고 '행해진 것' 사이의 다소간의 괴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건축이 다루는 스케일 속에서는 도시적인 담론을 담더라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괴리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와 건축 사이의 간극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통해 견해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김억중
(건축가, 한남대 건축과 교수)